# "고객맞춤 아파트 정보 제공합니다"

## 주공·건교부 등 부동산 정보서비스 진화
## 주택·토지 매물 등 공급자 위주 소개 탈피
## 분양·전세 동향 등 수요자 맞춤 상품 제시

박성수(37·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는 최근 '내집 마련' 계획을 다시 세웠다. 분양가가 높은 새 아파트 대신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한 것이다.

박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www.bogeumjari.com)' 사이트 역할이 컸다. 이 곳에는 주택구입에 대한 각종 정보는 물론, 고생 끝에 집을 장만한 서민들의 삶과 눈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박씨는 "우연히 주공의 홈페이지를 둘러본 뒤로는 새 아파트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접었다"며 "소득별 '내집 마련' 프로그램을 통해 4~5년 정도 더 돈을 모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가 진화하고 있다. 중개업소 등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던 부동산정보가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는 수요자의 편리성과 거래성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다 주택구입 시점과 재테크 방식까지 상세히 소개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운영중인 '보금자리' 사이트는 '내집 마련'에 대한 각종 경험담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소득계층 및 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주택 구입정보를 통해 무주택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매물의 경우 부동산정보업체를 활용하면 된다. '스피드뱅크(speedbank.co.kr)'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만6천여개의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피드뱅크는 또 '부동산 클리닉'을 통해 1대1 맞춤식 정보를 제공한다. 매수자가 거래희망 시기나 지역 등을 입력하면 거래 가능한 매물과 물건의 상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114(r114.co.kr)'에서는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또 '거래지원서비스'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부동산의 거래유형과 조건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 중개업소에서 조건별 매물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가격이 궁금하다면 건설교통부의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전국의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가격, 토지이용규제 등을 필지별로 지도상에서 제공한다.

건교부의 '전월세 포털(jeonse.jugong.co.kr)'도 호응도가 높다. 전·월세 매물 및 시세정보, 법률 및 금융상담 등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여수 부동산 시장 활기

##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이후 거래량 50% 급증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이 50% 가량 급증할 만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여수의 경우 세계박람회 유치를 전후로 서울 등 외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잇따르면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박람회 유치 이후 한 달간 거래된 여수지역의 부동산 매매신고 건수는 1천134건에 달한다. 이는 세계박람회 유치 이전인 지난해 10월(730건)과 11월(783건)에 비해 각각 57.5%(404건), 44.8%(351건)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여수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은 박람회 유치 이후 서울, 부산 등 외지 투자자들이 대거 여수지역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외지 투자자의 경우 박람회 개최에 따른 개발 호재를 겨냥해 토지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지역 내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여수의 경우 지난해 12월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토지의 비율은 80%에 달한다. 또 이같은 거래 급증으로 인해 땅값도 박람회 개최 전보다 20~30% 가량 뛰었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새내기 행원들의 다짐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13일 신입직원 연수의 일환으로 광주시 동구 남부지점 등 25개 영업점에서 '새내기' 행원들의 패기와 열정을 담은 '열정 전파 릴레이' 행사를 벌였다. 이번 신입직원 연수는 오는 29일까지 80여일간 열린다.〈광주은행 제공〉

# 금호건설, 베트남에 4조원대 신도시 개발

금호건설이 베트남 하노이시에 사업비가 4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금호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시 뜨리엠현 박 꼬뉴에-쨈 지역 3천600만㎡ 부지에 총 40억달러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노이시 도심에서 약 7㎞ 북서쪽에 있는 뜨리엠 현 박 꼬뉴에-쨈 지역에 주거단지와 상업·공업·업무·학교시설·공원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금호건설은 이와 관련해 베트남 현지 국영기업인 UDI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또 지난 12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시내 중심지와 운하를 개발하는 '쥬메이라 가든 시티프로젝트'의 사업참여 의향서를 두바이 국영기업인 MERAAS로부터 받았다. 이 사업은 두바이 해안을 포함한 약 1천만㎡ 부지에 24만명 인구가 상주하게 되는 신도시와 7㎞에 이르는 내부 운하를 건설하는 공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아시아나, 女心을 잡아라

## 공항내 첫 뷰티존 설치
## 다이어트 기내식 제공
## 다양한 프로젝트 가동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다이어트 기내특별식을 여성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대표 강주안)이 여성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아시아나는 국내 최초로 공항내에 뷰티존을 설치하고, 다이어트 기내식을 제공하는 한편 마일리지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오는 6월 오픈 예정인 인천공항내 뷰티존은 입국장 내에 기초 화장품을 구비한 화장대와 드라이어, 갱의실 등을 갖춰 입국하는 여성고객들이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 다음달부터 인천을 출발하는 중·장거리 노선(동남아·대양주·미주·구주)의 트래블클래스(일반석) 고객에게 열량을 최소화한 과일과 토마토 샐러드, 곡물빵, 죽순쇠고기밥, 칠미죽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기내특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기내식보다 20% 정도 열량을 감소시킨 이 기내식은 이동공간이 제한된 기내에서 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는 오는 18일부터 대표적인 인터넷쇼핑몰인 현대아이파크몰과 제휴해 국내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구매가격의 10%를 마일리지로 정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밖에 여성전용홈페이지인 'LADY ASIANA.COM'을 대폭 개편, 여성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20주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오는 21일에는 20세 여성(88년생) 30명을 초청, 일일 승무원 체험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조촐히 치르는 대신 내실 다지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기아 멤버스 사이트 '카바타' 서비스

## 회원간 차량 관리·정비 정보 공유

기아차는 멤버스 사이트인 'Q멤버스'에서 '카바타(Cavata) 서비스'〈사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바타'는 '차'(Car)와 '분신'(Avata)의 합성어로, 회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를 본뜬 캐릭터를 만들어 자동차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게 '카바타 서비스'라고 기아차는 소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Q멤버스 회원들은 좀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차량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차종별 관리정보와 실제 정비정보를 연계, 시기별 맞춤정보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카바타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오는 28일까지 영화예매권 및 주유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모닝, 모하비 카바타 찾기'와 '카바타 색깔 바꾸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해외시장 개척 요원 양성

## 지원 대상·규모 확대키로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은 해외 현지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우수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해 현지 무역관이나 교포가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 파견해 수출과 마케팅 전략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선발된 근로자에 국내 교육비와 왕복항공료, 해외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해외 지사로 파견할 예정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상(www.exportcenter.go.kr)으로 받는다. /연합뉴스